

정보화와 삶의 질: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趙明翰* · 金正午*

〈목

I. 머리말	VII. 정보화 매체의 사용에 따른 사회활동·개인심리의 변화
II. 정보화와 삶의 질: 이론과 분석 틀	VIII. 전반적인 행복감과 기대되는 삶의 질의 변화
III. '삶의 질' 일반 척도와 그 타당도	VIII. 삶의 질 일반에 대한 요인분 석 및 정보화와의 관련성 검토
IV. 삶의 질 지표와 객관적 사회 지표의 관계	IX.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영 역들간의 상관관계
V. 정보화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변화에 대한 기대	X. 요약 및 결론

I. 머리말

오늘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 성질이 곧 정보이고, 인간은 다름 아닌 정보 처리 체계이다. 우리사회도 지금 정보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화의 영향은 물질적 기본 욕구 충족을 포함하는 국민의 제반 삶의 방식에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실제로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엄청난 변화를 심각하게 체험하고 있다. 이 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한층 더 중요한 일은 이 변화를 타당성 있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지표를 탐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의 정보화가 인간의 사회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인간의 삶의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터이므로,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보다 사회체제의 수행에 대한 측정이 앞서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교수, 심리학.

'물질적 생산과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와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이들 두 사회에서는 마땅히 그 삶의 지표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든,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개인의 안녕·복지(well-being)를 극대화하는 것일 수 있으나, 한 사회의 주요 측면들이 다르면 이 복지의 조건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Campbell, Converse, and Rodgers, 1976).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이 곧 개인의 안녕 복지라 가정할 수 있었다. 이 때의 사회지표는 인구, 주거조건, 실업률, 소득수준 등의 객관적인 지표들이면 죽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정보라는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개인의 안녕 복지라는 삶의 질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삶의 질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심리학자·사회학자 등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비인간화라든지, 도시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다루지 않고 인지적·정서적·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생활 경험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삶의 질을 다루게 되었다(Campbell, 1976). 즉, 한 사회가 갖는 주요 측면들의 조건을 포괄적이고 균형있게(comprehensive and balanced) 측정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일게 된 것이다. 이 운동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삶의 질'이라는 주관적인 지표이다(Andrews and Withey, 1976).

Ⅱ. 정보화와 삶의 질: 이론과 분석 틀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1976)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평가하며, 만족해하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소득과 교육이 개인의 행복, 만족감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일년에 12,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학 졸업자들은 그들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유별나게 행복해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고졸자들만큼 물질적·경제적 안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삶에 있어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약 52,000명을 조사한 Shaver와 Freedman(1976)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었는데, 이들의 조사 대상자들 역시 소득 상황, 주거 조건 등의 물질적 차원들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순위들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Mullis(1990)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조사 연구에서 경제적 풍요를 현 소득으로 측정한 점을 비판하였다. 현 소득은 개인의 복지에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의 모든 성분들을 충분히 대표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복지의 부적절한 지표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고정 수입, 연금, 빈곤수준의 수입 등이 고려된 경제적 복지가 심리적 행복감을 잘 예언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사람들이 보통 보고하는 현 수입은 심리적 복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Mullis(1990)의 연구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심리적 복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생활 수준, 주거, 건강, 거주지, 여가 활동 등과 같이 경제적 요인들이 많이 개입된 문항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Shaver와 Freedman(1976)은 네 가지 심리적 태도—정서적 안정성, 탈 냉소주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믿음 및 개인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통제감(feelings of control)—가 행복감의 핵심 요소들임을 밝혔다. 정서적 안정성은 좋은 일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탈 냉소주의는 인간성과 인간의 운명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며, 통제감은 좋은 일이 개인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인간이 사건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신념을 일컫는다. Parducci(1984)는 Shaver와 Freedman(1976)의 연구와는 달리 가치의 상대적 특징을 강조하는 행복감에 대한 관계설(a relational theory of happiness)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건 맥락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만족과 즐거움을 얻고 불만과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되는 개인의 삶의 질(Shin, Ahn, Kim and Lee, 1983)은 후기 산업사회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주요 연구 문제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식 중심의 생활양식이 주가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서적 안정성이나 삶에 의미가 있다는 믿음 또는 통제감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차원에서의 삶의 질이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는가?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정보나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함에 있어, 자동화·전산화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훨씬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며, 작업 방식이나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에 따라 대인관계 등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컴퓨터, 로보트,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기 등을 활용하여 양적·질적인 면에서 탁월하게 정보를 생산해내고, 이를 전파하는 첨단 기기들을 더 발전시킴에 따라 정보화의

주체인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그 생각, 행동 방식 등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생산 또는 작업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 소득의 향상이 있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주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예컨대 여가활동, 문화·예술활동)는 그 개인의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는 물론 심리적 복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과는 대조적으로 역기능도 충분히 예상된다. 새로운 통신수단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지만, 종전과 같은 대면 대화 방식이 아니므로 정서적인 측면이 간과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정보 환경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져서 인간의 직접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원호택, 1989).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이 인간관계, 문화·예술활동 등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변화하게 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개인이 현재 일상적인 삶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도 정보화와 아울러 예상되는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까닭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예상함에 있어 개인이 사용하는 판단 기준들 중의 한 주요 성분은 그 개인이 현재 삶의 여러 영역들(예, 건강·친구관계·소득·교육·주거환경 등)에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삶의 질 연구(Shin, Ahn, Kim and Lee, 1983)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척도 상에 있어 만족과 즐거움의 수준이 50점보다 훨씬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그 당시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환경과 외부 상황들(예컨대, 환경오염·주거 교통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개인의 안녕·복지(예컨대, 인간 관계 유형과 상황, 성취감·행복감·만족감)와 긴밀히 관계된다. 자아실현, 성취감 및 행복감을 포함하는 삶의 질은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인간의 기본 요구들은 신체적 물리적인 것이므로 얼마든지 객관적인 지수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 그러나 동기의 위계구조에서 상층에 속하는 삶의 질은 개인의 포부·이상·가치 등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개념이므로, 주관적인 자로 젤 수 밖에 없다(Maslow, 1970 참조).

어떤 사회적인 조건에 대하여 측정된 삶의 질은 그것이 만족스럽다든지(혹은 불만스럽다든지) 또는 기쁨을 준다든지(혹은 언짢다든지) 등의 자신의 체험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 질은 지각의 표상이요 또 느낌의 표상이다. 바로 이러한 주관성 때문에 삶의 질의 측정은 객관적인 지표보다 더욱 많은 이점을 갖는다. 이처럼 삶의 질은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에 유용한 측정도구이다.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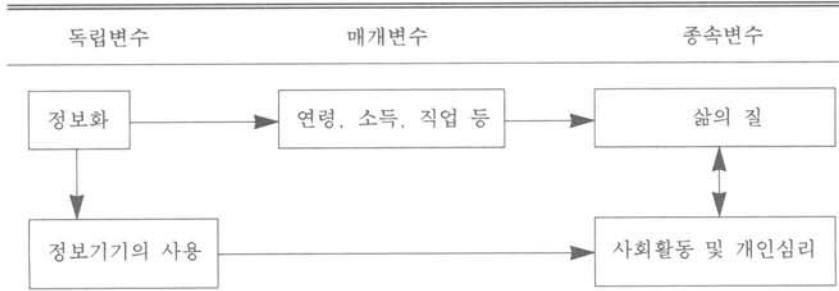
대 빈곤에서 벗어난 사회, 특히 지식과 정보가 동인이 되는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의 변화가 별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정보화 사회야말로 삶의 질의 철학이 존중되는 사회인 것이다(박성호, 1992).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한국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1993년 현재 한국에서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과 그 효과를 파악하고, 그 활용의 효과와 지각된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뉴 미디어의 이용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삶의 질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의료 및 보건, 공동체활동, 여가선용, 대인관계 등 13개의 삶의 질 영역들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기대가 어떻게 다른가; 정보화 매체를 사용함에 따라 사회활동과 개인심리 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감과 정보화 사회에서 기대되는 삶의 질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제 영역들 간의 관계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등의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1〉과 같은 분석 도식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제 영역에 미치는 매개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됨에 따라 변하는 개인의 소득수준, 직업 등의 매개 변수들을 거쳐, 또한 최신 정보기기를 사용한 경험과 그 직접적 또는 간접적 효과(예, 업무 수행, 조직 풍토, 인간관계 등) 및 이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그 개인이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에 있어 기대하는 변

〈표 1〉 정보화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상의 변화에 대한 분석 틀



화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소득수준, 연령이나 직무에 따라 첨단 정보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빈도가 달라질 것이며, 또 연령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미디어를 접할 기회와도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이외에도 응답자 자신이 현재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전반적인 행복감도 정보화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상 특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의 도식은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사회활동과 개인심리의 여러 영역들에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도식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단순화에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기대되는 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한 그 첫 접근으로서 이 도식의 유용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1993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제조·유통·서비스 부문, 금융 부문, 언론·출판부문, 학술·연구부문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면접하여 수집된 것이다.

III. '삶의 질' 일반 척도와 그 타당도

한국에서도 삶의 질에 관한 기존 연구가 특정 영역에서 수행된 바 있으나 (Shin, Ahn, Kim, and Lee, 1983; Shin and Chey, 1992). 이 때 쓰여진 검사는 특수한 영역과 특수한 주제에 한정하여 제작된 문항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삶 일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삶의 질 일반이라 함은, 이 척도의 문항들이 직업이나 자녀 교육과 같은 생활의 특정 관심사항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일반에 관해 전반적인 수준에서 얼마만큼 만족하느냐를 측정함을 일컫는다. 척도의 구성은 주로 『오늘날의 심리학』(Psychology Today, 1975년 10월)을 참고하여 7점 평점 척도로 여덟 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세 문항을 이 척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삶의 질 일반 검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표 2).

이 검사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 일반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참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타당도의 문제이다. 우리는 타당도의 검증을 세 측면에서 시도하였던 바. 그 하나의 측면이 스트레스와 관계된 심리적 증후와 신체적 증후에 관한 것이다. 두통·불면증 등 20개의 항목의 증후에 대해 작년 1년 동안 경험한 것을 모두 표시하도록

〈표 2〉 삶의 질 척도 및 타당도 검증용 척도의 구성

I. 삶의 질 척도

- 귀하의 인생목표·이상에 견주어 볼 때, 귀하는 현재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귀하가 노력해 온 것과 귀하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과거 귀하의 처지와 비교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생각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귀하의 능력과 장단점을 고려할 때 기대되는 것에 비추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귀하가 이루어 낸 것을 친척(부모·형제·자매 등)이 해낸 것과 비교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귀하가 이루어 낸 것을 친구·동료가 해낸 것과 비교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귀하가 지금까지 이루어 낸 것을 같은 처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루어 낸 것과 비교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대체로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행복하였습니까?

II. 타당도 검증용 척도

- 귀하가 작년에 경험한 것은 다음중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V하여 주십시오.
심리적 증후: ① 만성적 근심·걱정, ② 쉽게 피곤해 함, ③ 종종 죄의식을 느낌,
④ 지탱할 수 없다는 느낌, ⑤ 고독감, ⑥ 자신이 가치없다는 느낌.
신체적 증후: ① 빈번한 두통, ② 위궤양, ③ 고혈압, ④ 불면증, ⑤ 악몽, ⑥ 만성
적 설사, ⑦ 비합리적인 공포, ⑧ 가끔씩 울었다, ⑨ 상당한 비만, ⑩
상당한 말라깽이, ⑪ 월경주기 불규칙 및 생리통, ⑫ 성적 흥미 감소,
⑬ 만성적 변비, ⑭ 꾸준한 체중 조절.
- 갑자기 큰 재산이 생긴다면, 귀하는 현재의 일(학업 포함)을 계속하시겠습니까?
- 귀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어느 정도 자주 생각하십니까?

조사 대상자들에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 빈도와 '삶의 질 점수'⁽¹⁾ 사이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Pearson $r = -.31$).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이들 스트레스를 심리적 증후와 신체적 증후로 나누어, 삶의 질 개별 문항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적혀 있거니와, 심리증후는 8개의 개별문항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얻어졌으나, 신체증후는 3개의 문항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심리증후에 비해 신체

(1) 삶의 질 점수는 "8개의 삶의 질 문항들에 대한 평균 점수"로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불만이다"에 -3점, "불만이다"에 -2점, "다소 불만이다"에 -1점, "중간이다"에 0점, "다소 만족한다"에 1점, "만족한다"에 2점, "매우 만족한다"에 3점의 값을 부여하여 산술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표 3〉 심리적 증후와 신체적 증후의 삶의 질 개별 문항과 상관계수

구 분	심리적 증후	신체적 증후	삶의 질 점수
심리적 증후	1.00		
신체적 증후	.39**	1.00	
삶의 질 점수	-.37**	-.16**	1.00
인생 목표·이상에 비춘 만족도	-.36**	-.10	.78**
자신이 노력해온 것에 대한 만족도	-.18**	-.09	.64**
친척과 비교했을 때의 만족도	-.26**	-.10	.71**
친구와 비교했을 때의 만족도	-.23**	-.09	.79**
같은 처지의 사람과 비교시 만족도	-.26**	-.14*	.75**
과거의 자신과 비교시 만족도	-.22**	-.13*	.72**
자신의 기대수준에 비춘 만족도	-.23**	-.08	.75**
지난 6개월간의 행복도	-.35**	-.19**	.55**

*p<.01 **p<.001

증후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내지 불안 증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 일반 검사의 모든 개별문항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인 -.16이 얻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더군다나 신체증후와 삶의 질 모든 문항 사이에 부적 상관이 얻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조직 체계에까지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것은 삶의 질의 여하한 측면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가 구성하고 측정한 삶의 질 일반 검사는 단순히 지각된 삶의 질 이상의 질을 측정한다는 확고한 타당성을 보장하여 준다. 지각된 것 이상의 실제 심리적인 고뇌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질 뿐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와 역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려한 삶의 질의 두번째 타당성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착 여부이다. “갑자기 큰 재산이 생긴다면, 귀하는 현재의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가 바로 그 문항이다. 조사대상자 420명이 삶의 질 검사에서 보인 전체 평균 점수는 .27이었거니와, 이 평균치를 다시 다섯 등급으로 표시하게 하였을 때, 각각의 등급에 대해 보인 삶의 질 전체 평균 점수는 〈표 4〉와 같다. “단연코 계속 일한다”에서 “단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에 이르기까지 애착의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의 점수도 낮아졌다. 애착의 정도와 삶의 질의 정도가 등급들 간의 순위상관이 1.0임을 알 수 있다. 행복이 일에 대한 애착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의 척도가 매우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타당도의 세번째 측면은 “자신의 삶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어느 정도 자

〈표 4〉 현재 일에 대한 애착 정도별 삶의 질 점수

현재 일 계속 여부	삶의 질 점수	사례수
단연코 계속 일한다	.77	81
아마 계속 일할 것이다	.37	146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20	73
아마 계속 일하지 않을 것이다	-.04	84
단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47	33

〈표 5〉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반성 빈도별 삶의 질 점수

삶의 질 생각 빈도	삶의 질 점수	사례수
늘 생각한다	.07	86
자주 생각한다	.25	188
가끔 생각한다	.42	137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38	7

주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것이었다. Beck(1987)에 의하면, 우울증은 자기 자신과 미래와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전망의 소산이다. 그리하여 우울증 치료의 한 목적은 Beck의 인지 이론에 따르면 자동적인(automatic)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부정적인 생각을 탐지하고 검토하여 교정하여주는 일이다. 이 인지 이론은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하는 빈도 자체가 부정적인 삶의 질의 인지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평소 삶의 질에 대해 응답자가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사례수가 단지 7명임을 고려할 때, 삶의 질에 만족할수록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빈도"라는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이 검사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IV. 삶의 질 지표와 객관적 사회지표의 관계

우리는 앞에서 사회지표로서의 삶의 질은 주관적인 지표라고 규정하였다. 지표의 주관성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주관적인 지표는 객관적인 지표와 비교되어야 더욱더 그 고유한 의미가 살아난다. 우리는 응답자들의 성·연령·교육수준·종사부문·본인소득·가족소득·성장지역 규모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삶의 질의 평균치 및 그 세부 집단별 차이검증의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삶의 질의 평균치 및 차이 검증

사회· 인구학적 배경변수	구 분	사례수	평균치	집단간 평균차 검증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성	남자(집단 1)	283	.34		*		
	여자(집단 2)	135	.13	*			
연령	24세이하(집단 1)	77	.07				*
	25~29세(집단 2)	133	.24				*
	30~39세(집단 3)	134	.19				*
	40대이상(집단 4)	72	.72	*	*	*	
교육수준	고등학교(집단 1)	77	.15				
	초급·전문대학(집단 2)	27	.32				
	대학교(집단 3)	192	.13				
	대학원 이상(집단 4)	122	.55				
종사부문	제조·유통·서비스부문(집단 1)	121	.22				
	금융부문(집단 2)	100	.25				
	언론·출판부문(집단 3)	98	.15				*
	학술·연구부문(집단 4)	99	.47			*	
본인소득	71만원이하(집단 1)	108	.09				*
	72~119만원(집단 2)	133	.18				*
	120~167만원(집단 3)	85	.32				*
	168만원이상(집단 4)	86	.63	*	*	*	
가족소득	143만원이하(집단 1)	107	.10				*
	144~215만원(집단 2)	113	.25				
	216~311만원(집단 3)	101	.32				
	312만원이상(집단 4)	43	.45	*			
성장지역 규 모	대도시(집단 1)	253	.24				
	중소도시(집단 2)	73	.28				
	읍(집단 3)	34	.14				
	면 이하(집단 4)	58	.48				

*t-검증 및 일방 F-검증(one-way ANOVA)을 통한 부분집단간 차이가 $p < .05$ 에서 유의미함.

우선,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t=2.18$, $p < .05$). 그리고 연령은 40대 이상이 그 이하보다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61$, $p < .001$). 또한, 본 조사에서 직장종류에 따라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검출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특히 학술·연구부문의 직종이 언론·출판부문의 직종보다 삶의 질에서

만족도가 높다($F=6.53$, $p<.001$). 아울러 개인의 소득이든 가족전체의 소득이든 소득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의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표집된 조사대상자들이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본인소득 168만원 이상, 내지 가족소득 312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삶의 질이 높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 성장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출신지역 규모에 따른 삶의 질 점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으며, 현재 이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변수들은 현재의 속성이 아니라 과거의 속성이다.

그러나, 현재의 속성들, 즉 성·연령·종사부문·소득수준에 따른 삶의 질 점수 차이는 뚜렷하다. 그것은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며 활동하는 경우에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책에서 한층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저연령층보다는 40대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저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도 높기 때문일듯 싶다. 학술·연구부문 종사자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은 그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게 하는 요소가 많음을 가리키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뒷받침이 삶의 만족에서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성격은 조사대상자가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일에 대한 애착 여부'이다.

<표 7>에는 “갑자기 큰 재산이 생긴다면, 현재의 일을 계속하겠는가?”의 문항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반응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한 눈에 남자 일수록, 높은 연령일수록, 높은 학력일수록, 학술·연구부문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일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일에 대한 애착이 삶의 질과 관계 있고, 일의 애착이 다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각된 삶의 질은 성장지역의 규모를 제외한 모든 객관적인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들에 의해 잘 반영된다. 객관적인 지표들과 주관적인 총체적 지표인 삶의 질이 1 대 1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틀림 없다. Milbrath(1978, 1979)는 객관적인 지표들(conditions)과 주관적인 지표들(perceptions)의 관계를 개관하고, 이를 두 현상이 별개의 것이기는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현재 일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구 분	단연코 계속 일한다	아마 계속 일할 것이다	확실히 말할수 없다	아마 계속 일하지 않을 것이다	단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계
전체 성	19.3%	34.8%	17.6%	20.2%	7.9%	100.0%
남자	22.9	35.	16.2	19.4	5.6	100.0
여자	11.8	33.1	20.6	22.1	12.5	100.0
연령						
24세 이하	9.1	32.5	20.8	24.7	13.0	100.0
25~29세	18.5	30.4	22.2	19.3	8.9	100.0
30~39세	19.4	35.1	14.9	23.1	7.5	100.0
40대 이상	31.9	45.8	8.3	12.5	1.4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13.0	29.9	18.2	22.1	16.9	100.0
초급·전문대학	3.7	37.0	29.6	22.2	7.4	100.0
대학교	12.9	34.0	21.1	25.3	6.2	100.0
대학원 이상	36.9	38.5	9.0	10.7	4.9	100.0
종사부문						
제조·유통·서비스부문	11.5	33.6	23.0	23.0	9.0	100.0
금융부문	14.0	34.0	18.0	22.0	11.0	100.0
언론·출판부문	16.2	34.3	22.2	20.2	7.1	100.0
학술·연구부문	37.4	37.4	6.1	15.2	4.0	100.0
본인소득						
71만원이하	15.7	34.3	16.7	22.2	11.1	100.0
72~119만원	16.3	28.1	24.4	23.0	8.1	100.0
120~167만원	21.2	40.0	15.3	14.1	8.2	100.0
168만원이상	26.7	39.5	9.3	20.9	3.5	100.0
가족소득						
143만원이하	18.5	31.5	18.5	21.3	10.2	100.0
144~215만원	15.0	39.8	12.4	23.9	8.8	100.0
216~311만원	17.6	40.2	19.6	18.6	3.9	100.0
312만원이상	30.2	23.3	20.9	18.6	7.0	100.0
성장지역규모						
대도시	15.7	37.4	19.3	20.5	6.7	100.0
중소도시	34.2	26.0	15.1	16.4	8.2	100.0
읍	17.6	32.4	14.7	23.5	11.8	100.0
면 이하	16.9	35.6	15.3	22.0	10.2	100.0

하지만 안녕·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 필경 물리적 내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 역시 Milbrath(1978, 1979)의 결론을 지지하여 준다. 그렇지만, 부문간의 차이 보다도 어떤 부문이건 모든 응답자들이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는 사실이 중요하다. 신도철·안청시·김경동·이홍구(Shin, Ahn, Kim, and Lee, 1983)의 조사연구에서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반드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면(김경동, 1992).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하튼, 얻어진 결과가 강하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측면의 삶의 질의 효과가 객관적인 조건들에 의해 영향받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정보통신 이용자와 비이용자에게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V. 정보화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변화에 대한 기대

행정전산망, 컴퓨터 통신, 사무·판매·금융자동화 기술, 공장자동화 등으로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될 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의료 및 보건활동, 공동체 활동, 여가선용 등을 포함하는 사회활동과 개인심리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변화들을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응답자의 반응들 중 '다소 좋아질 것이다'와 '매우 좋아질 것이다'의 반응들을 묶어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여가선용(82%), 문화·

〈표 8〉 정보화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

(단위: %)

구 분	매우 나빠질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변함 없을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계
의료 및 보건	0.2	3.1	12.6	63.1	20.2	100.0
공동체 활동	6.9	29.5	20.2	31.9	10.7	100.0
여가선용	1.4	4.8	11.4	55.7	26.0	100.0
가정생활	0.5	12.1	26.0	47.4	13.1	100.0
대인관계	8.3	36.7	34.3	15.5	4.5	100.0
자아실현	1.9	9.3	26.2	47.6	14.3	100.0
지역갈등	1.7	7.6	49.0	31.9	8.8	100.0
지위·신분변화	2.6	6.9	52.1	31.0	6.7	100.0
부의 축적	1.9	7.6	52.6	31.0	6.0	100.0
문화·예술활동	0.2	5.0	18.1	55.2	20.5	100.0
도덕·윤리수준	7.6	37.6	36.0	13.3	4.5	100.0
스트레스 불안	17.1	41.2	23.8	12.6	4.3	100.0
일의 성취동기	3.6	15.0	31.7	39.0	10.0	100.0

예술활동(76%), 자아실현(62%), 가정생활(60%)의 영역에서 정보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사무와 작업의 자동화·전산화 때문에 작업 시간의 단축 및 효율화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소의 노력으로 작업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는 등 업무 수행의 신속성·간편성·효율성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 있어 위와 같은 영역 상의 변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은 수의 응답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17%), 도덕·윤리수준(18%), 대인관계(20%), 부의 축적(37%) 및 신분의 변화(38%)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환연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정보화와 함께 대인관계가 나빠지고(45%), 도덕·윤리수준이 떨어지며(45%),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할 것으로(58%) 염려하고 있었다.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정보의 과급 효과, 엄청난 정보의 처리 요구,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 가능성, 지식의 변화 속도가 빠른 데 기인하는 적응 문제, 덕성이나 인격 보다는 도구적인 지식 중심의 삶 등이 응답자로 하여금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한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못미치는 응답자들이 또한 지역감정(40%)과 공동체 활동(42%)에서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갈등, 부의 축적 및 지위 신분의 변화와 관련해서 반수 정도의 응답자들이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 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 및 계층 간 갈등의 해소에 지식 전달, 가공 및 재생산 중심의 정보화가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건강·여가활동·교양 및 지식 팀 구 등에서는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대인관계·공동체 활동 등에서는 부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적인 기대는 노동 또는 작업 시간의 단축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개인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지만, 기계화와 자동화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비인간화될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염려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이러한 기대 패턴은 정보화가 개인의 삶에 있어 인지적(cognitive)·수행적(performance)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서적(affective) 내지는 감성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의 분석 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활동과 개인심리에 관한 기대가 소득, 연령, 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 연령 또는 직업에 따

라 새로운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다를 것이며, 또 정보화 경험의 양적·질적인 측면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이 낮을수록, 관리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사회의 정보화에 더 민감할 것이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제반 영역에서 변화를 전망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소득, 연령 및 직업을 독립변수로,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를 종속변수로 취급하고 각 변수의 수준에 따른 특정 영역에서의 평균치의 차이를 F-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득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응답자의 기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표 9>에 정리된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의미있는 평균치의 차이들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응답자들이 차이를 보인 영역들은 공동체 활동,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아실현, 사회적 신분의 변화, 부의 축적 및 도덕·윤리 수준 등이었다. 고소득 집단(168만원 이상)이 타 집단들보다도 공동체 활동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집단은 또한 71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과 함께 가정생활의 질도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두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대인관계가 덜 악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71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은 자아실현과 부의 축적 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집단은 또한 120~167만원 소득의 집단과 함께 사회적 신분 상의 변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71만원 이하의 소득 집단은 정보화 사회와 더불어 도덕윤리 수준이 덜 악화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낮은 소득수준의 집단이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면에서 크게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소득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들이 중간 정도의 소득 집단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연령, 직업, 정보화 매체와의 경험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다른 소득 집단들 중 그 소득이 72~119만원 대의 조사대상자들이 정보화와 더불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집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의 연령층이며 회사에 입사한지 대략 5년 전후인 사람들로 구성된 바 조직에서 업무 또는 비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갈등·인간관계를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와 더불어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변화를 기대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변수들로는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이다. 최신 정보기기의 사용 경험, 이를 위한 연수 교육의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이 두 매개 변수는 중요하다. 앞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변수는 사회활

동 및 개인심리의 두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직업 변수는 여가 선용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 두 변수들에서 보인 집단 간 평균치의 차이들을 정리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3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타 집단들에 비해 의료 및 보건 활동이 정보화와 더불어 더 좋아지리라 예상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령 층이기도 하거니와 건강 진단·예방·치료 등에 있어 현대 의학이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덕·윤리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리라 예상하지만, 25~39세의 응답자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이를 더 걱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이 해당 조직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직업 집단들에 비해서 학술연구 부문의 종사자들이 고도의 정보화와 더불어 개인들이 삶에서 여가를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개인의 소득, 연령 및 직업에 따라서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예상보다는 광범위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회사원 및 은행원들이 표본의 50%를 차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변수에 따라 변화에 대한 기대의 내용이 상당히 달랐는데, 이 결과는 이 변수

〈표 9〉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 평균치

구 분	71만원 이하	72~119만원	120~167만원	168만원 이상
공동체활동	.09	-1.13	.17	.37
대인관계	-.14	-.48	-.29	-.20
가정생활	.72	.41	.59	.80
자아실현	.83	.48	.58	.69
사회적 지위·신분	.40	.19	.49	.30
부의 축적	.51	.19	.29	.34
도덕·윤리수준	-.13	-.44	-.32	-.32

*최저 -3점(부정적 변화를 기대), 최고 3점(긍정적 변화를 기대)임.

〈표 10〉 연령·직업별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의 평균치

	24세 이하	25세~29세	30세~39세	40세 이상
의료 및 보건활동	.85	.93	1.07	1.19
도덕 윤리수준	-.05	-.37	-.40	-.27
제조·유통·서비스부문		금융부문	언론·출판부문	학술·연구부문
여가선용	.96	1.02	.87	1.19

자체가 연령, 교육 수준 등과 밀접한 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VII. 정보화 매체의 사용에 따른 사회활동·개인심리의 변화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정보화 사회에서 최신 기기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의 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자에게 전화카드, 휴대전화, VTR, 전자우편, LAN(근거리 통신망)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그에 따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우편으로 업무 뿐만 아니라 친교, 비사업적인 사교활동 등을 하는 사람들은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의 정보화와 더불어 대인관계나 지역 갈등에 관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

정보 통신 수단을 달리 할 경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인간 관계가 다른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사용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화 매체별로 사용자와 비사용자들을 나누고 이 두 집단들이 사회활동과 개인심리의 13 영역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집단간 평균 차이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언급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매체의 사용 여부에 따라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를 어느 정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정 매체의 사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개인의 소득, 교육 수준, 업무 유형, 조직에서의 위치 등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고되는 결과들은 탐색적인 수준의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표 11〉에 제시하였듯이 분석 결과, 전화카드, 휴대전화, 워드프로세서, POS, 유통 VAN, 원격 검침 등의 경우 사용집단과 비사용집단이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여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로보트, 위성방송 등의 경우 사용자의 수가 너무 적어 비록 한 두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더라도 그 결과를 무시하기로 하였다. 이 이외의 정보화 매체의 경우 사용자와 비사용자 집단들이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몇몇 영역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표 11〉을 보면, 민원서류를 전화로 사무 처리하는 제도를 이용해 본 응답

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신분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E-mail 사용자들은 지역 갈등과 사회적 지위 신분에서 비사용자에 비해 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이 LAN 사용자 집단들에서도 관찰되었다. MIS 사용자들과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들은 각기 해당 비사용자들보다 정보화와 더불어 여가선용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의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직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 정리된 결과들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응답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화 매체가 구체적으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회활동과 개인심리의 비슷한 영역들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전자사서함 이용자와 LAN 이용자들은 모두 지역갈등이 정보화와 더불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매체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영역들은 개인의 통제감(사회적 지위신분, 자아실현, 지역갈등), 의미있는 삶의 추구(여가선용) 및 인간관계에서의 염려(대인관계)인데,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표 11>에 정리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정보화 매체를 사용해본 경험이 공동체 활동, 여가선용, 대인관계, 자아실현, 지역 갈등, 사회적 지위·신분에 관련된 기대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표 11> 정보화 매체의 사용 여부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변화 차이

	이용집단 (N=112)	비이용집단 (N=270)	유의수준
민원서류의 전화처리			
자아실현	.78	.57	.03
사회적 지위·신분	.46	.25	.02
E-mail	(N=129)	(N=248)	
지역 갈등	.54	.33	.02
사회적 지위·신분	.43	.26	.05
LAN	(N=105)	(N=275)	
공동체 활동	.29	.02	.05
대인관계	-.13	-.40	.02
지역 갈등	.60	.33	.00
MIS	(N=113)	(N=226)	
여가선용	1.12	.93	.03
데이터 베이스	(N=229)	(N=175)	
여가선용	1.10	.90	.02

조사대상자들의 소득수준·교육·연령·직무 등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활동이나 개인심리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되었을 것이다. 한 유형의 정보 매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로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특정 영역에서의 기대가 분명히 달라지리라 예상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정보화 매체를 이용한다하더라도 비슷한 영역에서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정보화 매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들을 요인분석하여 매체를 범주화한 후, 각 요인별로 정보화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VII. 전반적인 행복감과 기대되는 삶의 질의 변화

응답자의 소득,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최신 정보화 매체의 사용 여부 등과 아울러 응답자가 평가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복감도 정보화 때문에 기대되는 삶의 질에 대한 예상을 결정할 가능성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삶의 영역 전반에서의 행복감을 여덟 개의 문항들로써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과 이들이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제 영역들에서 보인 반응들 간의 상관계수를 내어 그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12>를 보면, 먼저 전반적인 행복감과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간의 상관계수가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범주의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몇몇 상관관계는 전반적인 행복감이 응답자가 정보화 사회에서 기대하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응답자가 그의 인생 목표 이상에 비추어 현 상태에 만족할수록 사회의 정보화와 더불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r=.15$), 도덕·윤리수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본다($r=.12$). 친구나 동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취를 만족스럽게 생각할수록 의료 및 보건 부문에서 향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r=.14$).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과 비교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할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r=.13$). 과거의 처지에 비해 지금의 성취를 만족스럽게 여길 수록 고도의 정보화와 함께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r=.12$). 자신의 능력과 장단점을 고려할 때 기대되는 기준에 비추어 만족스럽게 생각할수록, 가정생활($r=.13$), 대인관계($r=.13$) 각각에서 더 긍정적 변화를 예상한다. 또한 지난 6개월 간 행복하였다고 평가할수록, 여가선용($r=.12$), 가정생활($r=.12$), 도덕·윤리수준($r=.15$) 각각에

〈표 12〉 전반적인 행복감과 기대되는 삶의 질의 변화 간의 상관계수

구 분	비교 대상							전반적 행복
	이 상	노 력 정 도	친 척	친 구	같은처지 의 사 인	과 거	기 대	
의료 · 보건활동	.10	.06	.05	.14*	.13*	.04	.06	.02
공동체 활동	.10	.07	.11	.11	.09	.10	.08	.07
여가선용	.04	.07	.01	.04	.05	.02	.03	.12*
가정생활	.10	.05	.06	.07	.06	.07	.13*	.17*
대인관계	.15*	.07	.07	.11	.09	.04	.13*	.07
자아실현	-.05	.01	-.06	-.06	-.03	-.09	-.07	.03
지역 갈등	.06	.05	.07	.03	.06	.10	-.01	.06
사회적 지위 · 신분	.11	.07	.04	.04	.04	.12*	.06	.08
부의 축적	.08	.09	.07	.08	.11	.05	.05	.06
문화 · 예술활동	-.01	-.01	-.02	-.01	.02	-.09	.00	.00
도덕 · 윤리수준	.12*	.05	.05	.08	.07	.02	.06	.15*
스트레스 · 불안	.07	.05	.04	.08	.08	.10	.11	.07
성취동기	.06	.05	-.04	.03	-.01	.03	.05	.06

*p<.05

서 고도의 정보화와 함께 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표 12〉를 보면, 개인의 전반적 행복감을 자신의 노력 정도나 친척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과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대인관계, 도덕 · 윤리 수준 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화와 함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상하는 영역들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개인의 행복감이 클수록 이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13가지 영역들 중 공동체 활동, 자아실현, 지역갈등, 부의 축적, 문화 · 예술활동, 스트레스 · 불안 및 성취 동기는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감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절에서 정리된 결과들은 전반적인 개인의 행복감과 정보화 사회에서 기대되는 삶의 질의 변화 간의 관계가 미약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표 12〉의 상관 패턴과 〈표 9〉, 〈표 10〉 및 〈표 11〉의 결과들을 비교 · 종합해보면 소득과 같은 사회 · 인구학적 변수, 정보화 매체의 사용 여부가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감과는 다르게 삶의 질의 여러 영역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된다. 개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상 어떤 긍정적인 기저선(baseline)을 제공하는 지표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VIII. 삶의 질 일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정보화와의 관련성 검토

타당도의 검토 및 객관적 사회지표들과의 비교로 우리가 제작한 삶의 질 일반 검사가 정보화 사회에 매우 유용한 사회지표를 측정하는 도구임을 해명하였다. 그런데, 삶의 질 일반에 관한 한, “우리의 검사가 측정하여야 할 바를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라는 문제만큼 중요한 점은 “이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라는 검사 구성의 요인분석이다. 요인의 수를 세 개로 지정한 주 성분분석법에 따라 분산극대화축을 회전한 결과로 얻어진 요인부하량이 〈표 13〉에 적혀 있다. 그 부하량이 여덟 개의 문항들을 세 요인으로 깨끗하게 성분 분석시킨다. 우리는 요인 1을 “자기 준거기준에 따르는 만족감”, 요인 2를 “타인 준거기준에 따르는 만족감”, 그리고 요인 3을 “총체적인 행복감의 체험”이라는 명칭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삶의 질 일반에 관한 한, 기존의 모든 척도를 내용 분석하여도 이들 세 요인 이외의 요인을 검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구성한 척도의 내용이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검사로 측정된 삶의 질의 평균점수가 우리 사회의 정보화에 반영된 삶의 질의 점수라 믿어도 좋을 것이다. 더군다나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정보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문에서 표집되었다. 이들은 초기단계의 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95.3% 이용하고 있고, 기본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55.0%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의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집단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삶의

〈표 13〉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개별 문항들	자기 준거 기준의 만족감	타인 준거 기준의 만족감	총체적인 행복감의 체험
인생 목표·이상에 비춘 만족도	.66	.38	.27
자신이 노력해온 것에 대한 만족도	.71	.07	.33
과거의 자신과 비교시 만족도	.66	.45	-.07
자신의 기대수준에 비춘 만족도	.79	.29	.11
친척과 비교했을 때의 만족도	.15	.79	.23
친구와 비교했을 때의 만족도	.30	.83	.13
같은 처지의 사람과 비교시 만족도	.32	.80	.02
지난 6개월간의 행복도	.22	.17	.91
설명하는 변량(variance)	12%	51%	9%

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긍정적인 점수가 반드시 정보화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르는 삶의 질의 차이는 일의 애착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지만, 일의 애착 정도 자체가 정보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의 조사대상자들을 정보화의 정도에 따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다.

420명의 조사대상자들을 뉴미디어의 미이용자, 뉴미디어 1개 내지 2개만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3개 이상의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들 각각의 집단에는 97명, 211명 그리고 112명이 분포되어 있었다.⁽²⁾ 그리하여 이들 세 집단이 각각 삶의 질을 몇 점으로 평정하고 있는지를 계산하였다. 앞에서 요인분석한 결과에 따라 세 요인별로 삶의 질 평균점수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우리는 이들 세 집단 모두에서 삶의 질 세 가지 요인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정보화 정도가 각기 다른 세 집단간에 삶의 질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음을 다음의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 그 자체가 삶의 질의 유일한 결정 인자가 아님을 시사하고도 남는 것이다. 본래 정보화 사회란 개념 역시 정보기술 혁신과 지식산업에 따르는 복합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이지, 정보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표 14〉 및 〈표 15〉에 제시한 삶의 질의 평균점수가 이러한 새로운 복합환경에 본 조사대상자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느지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 해석일 것이다.

〈표 14〉의 분석은 비교적 고급의 정보 기술을 요구하는 뉴미디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조사 대상자들을 재분류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를 미디어의 사용

〈표 14〉 뉴미디어 이용 개수에 따른 삶의 질 요인별 평균점수

뉴미디어 이용개수	자기 준거 기준의 만족감	타인 준거 기준의 만족감	총체적인 행복감의 체험	사례수
조사 대상자 전체	.12	.40	.48	420
미 이용자	.13	.57	.68	97
1~2개 이용자	.08	.31	.35	211
3개 이상 이용자	.19	.43	.57	112

(2) 뉴미디어로는 비교적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E-Mail, LAN, MIS, POS, Data Base의 다섯 개를 선택하였다.

〈표 15〉 뉴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삶의 질 요인별 평균 점수 차이 분석

미디어	이용/비이용자	삶의 질 요인				
		자기준거만족감		타인준거만족감		총체적 행복감
위성방송	이용자 비이용자	.40 .08	*	.51 .40		.76 .46
휴대전화	이용자 비이용자	.26 .04	*	.51 .34		.55 .45
워드프로세서	이용자 비이용자	.07 .28		.36 .62		.44 .78
재택근무	이용자 비이용자	.86 .09	*	.94 .39		.82 .47
산업용 로보트	이용자 비이용자	.84 .09	*	.92 .38	*	.94 .48

주: 1) 삶의 질 점수는 “-3(악화)……0(그대로)……3(개선)”의 7점 척도이다.

2) t-검증의 결과: * $p < .05$

여부와 사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화가 삶의 질의 결정 인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14〉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삶의 질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이러한 의문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개별 미디어별로 조사 대상자의 사용 여부와 삶의 질의 관계를 다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정보통신 미디어 이용의 사례연구로 규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삶의 질 검사의 세 가지 요인별로 개별 미디어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위성방송·휴대전화·워드프로세서·재택근무·로보트에서 삶의 질 요인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었다. 〈표 15〉는 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세 요인 점수 차이의 t-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집단간 차이가 적어도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들만을 논술하겠다.

워드프로세서를 제외한 이들 모든 미디어가 “자기 준거 기준의 만족감”에서 유별난 차이를 나타낸다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타인 준거 기준의 만족감”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미디어는 오로지 로보트 뿐이다. “타인 준거 기준의 만족감”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하여 타인과의 비교라는 상대적 평가를 취한다. 일반적인 안녕·복지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 비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르는 안녕·복지는 타인 준거의 상대적인 평가를 거의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놀

립다. 아마도 그 까닭은 정보통신의 이용이 정보산업·지식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출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통신 이용 여부는 주로 “자기 준거 기준의 만족감”에 관련한 삶의 질을 고양한다. 그것은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에 준거한 삶의 질의 고양이다. 스스로의 준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안녕감(sense of well-being)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 삶의 질 이야기로 가장 주관적인 삶의 질인 것이다.

이 논의를 더욱 뒷받침하여 주는 사실이 “총체적인 행복감의 체험”的 특징이다. 이는 행복감의 구체적 체험이라 해석될 수 있는 것인 바, 이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좀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워드프로세서 이용자와 비이용자 뿐이다. 사실 행복감의 구체적 체험은 우연한 보상에 의존하기 십상일 것이다. 진지한 성실성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의 기회는 우연적일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 미디어의 이용이 지속적인 행복감의 체험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미디어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총체적인 행복감”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해석은 정보통신의 이용이 “자기 준거 기준의 만족감”的 삶의 질과 깊은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논의에 대하여, 그 논의의 反證可能性을 제거시킴으로써 그 타당성을 높여 준다.

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영역들간의 상관관계

정보화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상의 변화를 본 연구에서는 13개의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6〉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표 12〉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행복감과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영역들 간의 상관관계와는 대조적으로 13개 영역들 간의 상관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그 중에서도 상관계수(r)가 .4 이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경향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신분과 부의 축적, 사회적 신분과 지역 갈등,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 여가선용과 가정생활, 공동체 활동과 대인관계, 도덕·윤리수준과 스트레스 및 불안 간의 상관 관계가 주목할 만하였다. 의료 및 보건활동, 자아실현, 일에 대한 성취동기는 다른 항목들과 .4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될 때 사회적 신분의 변화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수록 부의 축적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응답자들은 여가선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수

〈표 16〉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제 영역들 간의 상관 계수

	의료	공동	여가	가정	대인	자아	지역	신분	부	문화	도덕	불안
공동	.28											
여가	.37	.35										
가정	.28	.40	.52									
대인	.17	.52	.21	.39								
자아	.26	.27	.37	.30	.29							
지역	.28	.25	.21	.18	.25	.30						
신분	.24	.30	.23	.22	.28	.33	.41					
부	.20	.21	.28	.24	.26	.33	.26	.44				
문화	.35	.28	.43	.30	.23	.33	.26	.21	.27			
도덕	.13	.36	.11a	.26	.51	.18	.14	.23	.23	.21		
불안	.15	.34	.16	.30	.44	.21	.15	.22	.16	.25	.52	
성취	.20	.31	.28	.23	.34	.37	.21	.32	.28	.35	.32	.32

p<.01

록 이들은 문화·예술활동이나, 가정생활에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동체 활동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할수록 대인관계도 긍정적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도덕·윤리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및 불안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13개 문항들이 대략 세 집단으로 묶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고도의 정보화가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3개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의 반응들을 중심으로 이 13개 문항들이 어떻게 묶여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적용한 결과, 세 요인이 있음이 밝혀졌다(표 17). 요인 1은 도덕·윤리수준, 스트레스 및 불안, 대인관계, 공동체 및 성취동기와, 요인 2는 여가선용, 가정생활, 의료 및 보건활동, 문화·예술활동과, 요인 3은 사회적 지위 및 신분상의 변화, 지역갈등, 부의 축적, 자아실현과 각기 큰 요인 부하량을 보인다.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의 패턴으로 미루어, 요인 1은 “인간관계에서의 염려”, 요인 2는 “가치있는 삶”, 요인 3은 “사회적 신분 향상”을 각각 나타낸다고 하겠다. “인간관계에서의 염려”가 나타내는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영역들 중 대부분은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다(표 8 참조). 이 “인간관계에서의 염려”는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의 변량 중 34%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은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함에 따라 특히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상실될 가

〈표 17〉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영역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부하량		
	인간관계에서의 염려	가치있는 삶	사회적 신분 향상
도덕·윤리수준	.81	-.01	.14
스트레스 불안	.75	.11	.08
대인관계	.75	.17	.20
공동체 활동	.56	.40	.14
성취동기	.40	.23	.40
여가선용	.07	.83	.13
가정생활	.37	.67	.01
의료·보건활동	.01	.61	.24
문화·예술활동	.15	.61	.26
사회적 지위·신분	.20	.07	.77
지역갈등	.06	.16	.68
부의 축적	.13	.16	.67
자아실현	.15	.41	.50
설명하는 변량(variance)	34%	11%	8%

능성을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있는 삶” 요인은 응답자의 반응의 변량 중 11%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요인에 속하는 사회활동 및 개인 심리 영역들에 대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서의 염려”라는 이런 점에서 크게 대조적이다. “사회적 신분 향상”에 속하는 영역들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은 ‘변함이 없다’ 또는 ‘다소 좋아질 것이다’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정보화와 함께 이 영역 상의 변화에 있어 소극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고된 요인분석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Shaver와 Freedman(1976)의 연구에서 밝혀진 개인의 행복감의 네 요소, 즉 정서적 안정성, 탈 냉소주의, 의미있는 삶의 추구 및 개인적 통제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관계에서의 염려”(요인 1)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서적 안정성 요소와, “가치있는 삶”(요인 2)은 의미있는 삶의 추구 요소 와, “사회적 신분 향상”(요인 3)은 개인적 통제감 요소에 잘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우리사회가 정보화되어감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정서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대를, 개인적 통제감에 대해서는 소극적 기대를, 의미있는 삶의 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정보화 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은 일차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크게 염려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삶의 의미가 추구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역 갈등, 지위·신분의 차별, 부의 편재 등의 개선에는 소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X. 요약 및 결론

삶의 질은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체제의 수행을 포괄적이고 균형있게 측정할 수 있는 주관적인 사회지표이기도 하고 사회과학적 이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념적 바탕도 '삶의 질'이다. 이 개념은 원래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를 찾는 연구들에서 나왔다. 사회지표란 한 사회의 주요 부문들의 여건에 관해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판단을 내리게하는 규범적인 관심을 통계치로 나타낸 것이다(미국 보건교육복지부, 1969). 주거환경, 교통, 범죄 발생 등과 같은 사회 여건들을 수량화 한 것이 사회지표인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수준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Sawhill, 1969). 사회지표를 찾는 연구들에서 삶의 질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Campbell과 Converse(1972)는 사회지표의 측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여건들이 어떻게 지각되고 평가되는지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한 핵심은 복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perception of individual well-being)이다(Andrew & Whithey, 1976). 개인복지의 향상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인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일반 검사가 정보화 사회의 연구로서 지니는 타당성 검증을 세 측면에서 시도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와 삶의 질 양자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계산되었고, 일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의 점수도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삶의 질에 만족할수록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검사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삶의 질 지표가 갖는 주관성을 객관적인 지표와 비교해 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르는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지각된 삶의 질은 성장지역의 규모를 제외한 모든 객관적인 사회 인구학적인 지표들에 의해 잘 반영되었다.

셋째, 응답자들은 사무와 작업의 자동화·전산화로 인하여 여가선용, 문화 예술활동, 자아실현, 가정생활 등의 영역에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의 정보화가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도덕·윤리수준이 저하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넷째,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보화가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 소득이 낮거나 높은 응답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복지와 심리적 복지가 관련있다는 선행 연구(예, Mullis, 1990)를 바탕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연령이나 직업과 같은 변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다섯째, 정보화 매체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영역이 다르긴 하였으나 비슷하게 묶여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E-mail, LAN, MIS, Data Base 등과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정보화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 많은 응답자들이 정보화에 따라 인간관계를 염려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체 사용자들은 그러한 경향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 각 응답자의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 역시 정보화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기대되는 변화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은 의료·보건활동, 가정생활, 대인관계, 도덕·윤리수준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일반을 요인분석하여, “자기 준거기준의 만족감”, “타인 준거기준의 만족감” 및 “총체적인 행복감의 체험”이라는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요인중 “자기 준거기준의 만족감”이 정보화에 의한 삶의 질의 변화를 가장 많이 설명하여 주는 요인임이 밝혀내었다.

여덟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의 제 영역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가치있는 삶” 및 “사회적 신분 향상”의 세 요인들로 범주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가 정보화에 따른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 내용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 세 요인들은 Shaver와 Freedman(1976)이 발견한 개인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네 요소 중 세 요소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앞으로 정보화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이 세 요인들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심층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아홉째,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정보화 매체의 사용 여부 및 전반적인

개인의 행복감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요인들은 사회생활과 개인심리의 13영역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자동화 전산화를 통해 개인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새로운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기대와 지각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을 주관적인 사회지표라고 규정하였는데, 그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지표와도 강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삶의 질은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지표 이상의 이론적 가치를 갖는다.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환경과 외부상황들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개인의 안녕 복지와 긴밀히 관련된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정보화 사회에서 삶의 질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경동

-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박성호
 1992 "정보사회와 삶의 질, 그리고 정보통신기업의 역할." *한국통신, 경영과 기술* 2: 5-1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대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신도철
 1982 "공산권에서의 삶의 질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4(1): 41-56.

원호택

- 1989 "정보화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편,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요인』. 서울: 한국심리학회.
 조명한 · 최명 · 이천표 · 김상균 · 김정오
 1993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조명한 · 김경동 · 강현우

- 1993 『청소년 문화정서지표 조사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Andrews, Frank, and Stepan Withey

-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Andrews, Frank, and Stepan Withey (eds.)
 1986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Ann Arbor,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Beck, A.T.
-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 5-37.
- Campbell, A., and Philip Converse
- 1972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Angus
-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and Willard Rodgers
-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rley, Michael
- 1981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Lee, Hong-Koo, Kyong-Dong Kim, and Doh C. Shin
- 1982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1.
- Maslow, A.H.
-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Milbrath, Lester W.
- 1978 "Indicators of Environment Quality." *Indicators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Paris: UNESCO.
- 1979 "Policy Relevant Quality of Life Research."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o.444.
- Mullis, R.
- 1992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as Predica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6: 119-135.
- Parducci, A.
- 1984 "Value Judgments: Toward a Relational Theory of Happiness." in J.R. Eiser (ed.), *Attitudinal judgment*. New York: Springer-Verlag.
- Sawhill, I.V.
- 1969 *The Role of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Reporting in Public Expenditure Decisions*.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haver, P., and Freedman, J.
- 1976 "Happiness." *Psychology Today*, 26-33.
- Shin, Doh C., Chung-Si Ahn, Kyong-Dong Kim, and Hong-Koo Lee
- 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393-416.
- 1986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United Stat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ublic Opinion Quarterly* (Fall).
- Shin, Doh C., and D. Johnson
-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hin, Doh C., and Myung Chey

- 1992 "The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Korean Mass Public."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atterns and Meaning of Democratization* held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